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발적 봉사활동 동기,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A Study on the Effect of Economic Stress on Aging Anxiety among Elderl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and Self-oriented Motivation of Volunteering

최장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재활학과

Jang-Won Choi(jwchoi@bufs.ac.kr)

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발적 봉사활동 동기, 그리고 연령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여 노화불안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공 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21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8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는 노화불안을 높였지만,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노화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을 높이는 가운데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그리고 고연령 봉사자일수록 노화불안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노인 봉사활동 | 경제적 스트레스 | 노화불안 |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동기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conomic stress on aging anxiet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otivations for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nd age.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a total of 182 elderly who have been volunteering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results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economic stress increases aging anxiety among elderly and motivations for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re likely to mitigate aging anxiety. Also, aging anxiety is expected to be lower as people are older and have higher self-oriented motivation for volunteering. Based on the result,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 keyword : | Elderly Volunteering | Economic Stress | Aging Anxiety | Self-oriented Motivation of Volunteering |

I. 서론

모든 사람들은 노화를 두려워한다. 죽음에 공포를 느

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탓에, 죽음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인 노화역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노화불안은 모든 세대에 존재하게 되는

* 이 논문은 2017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7년 11월 08일

수정일자 : 2018년 01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1월 08일

교신저자 : 최장원, e-mail : jwchoi@bufs.ac.kr

데, 중년위기에이른에 의하면 노화불안은 특히나 가정적, 사회적으로 생애주기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50~64세의 사람들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1]. 이는 역할이론에 근거하여, 노년기에는 가정적으로 자녀가 독립하고, 사회적으로는 은퇴를 맞이하여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에 취약해지기 쉬운 탓에 기인한다[2]. 특히 우리나라의 노년빈곤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3], 특히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수반하여 노화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을 예측할 수 있다[4].

실제로 우리사회 발전의 토양을 마련한 노인 세대는 2017년 10월 기준¹, 전체 인구의 약 1/5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년층은 서비스의 수혜자로서만 인식되어, 다른 세대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수동적 세대로 인식되어 노화불안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5]. 하지만 이들이 생산성 높은 활동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만들어내는 비물질적 가치, 무형의 자산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제가 되며[4], 개인적으로도 스스로가 느끼는 인지변화를 통해 노화에 대한 불안을 긍정 정서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WHO와 다수의 NGO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로서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활동과 무형자산 및 가치의 창출을 포함하는 것으로서[6], 이를 정책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노년층의 봉사활동이다.

고령자에게 있어서 봉사활동은 단순히 보람찬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봉사자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 되고, 이러한 생산적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역할강화를 경험함으로써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점에는 체력의 증진과 같은 효과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낮춘다는 연구[7-9]도 할 만큼 이점이 매우 큰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봉사활동은 이타적 동기에서 시작된 행위로서 봉사자의 희생을 당연시여기는 풍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봉사활동의 지속에 있어서 봉사자의 사명감과 같은 이타적 동기에 온전히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지속가능한 봉사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적, 개인적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봉사활동의 이점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동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게 만드는 기제로서의 자발적인 동기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봉사활동 참여자의 자발적 동기 및 봉사활동과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구나사회학적 변인으로 꼽히는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자발적 동기와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년기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는 노화불안을 높이는가?

[연구문제 2] 노년기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기는 노화불안을 낮추는가?

[연구문제 3] 연령에 따라 노화불안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경제적 스트레스, 연령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봉사활동 자발적 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노화불안과 경제적 스트레스

노화불안(aging anxiety)은 노년기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젊은 세대에도 존재하는 보편적 문제이다[10]. 하지만 젊은 세대의 노화불안은 주로 죽음에 초점을 맞춘 불안감에 기인하는 탓에 노년기에 경험하는 노화불안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10]. 이에 Lynch[1]는 노화불안을 노화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의 조합으로

¹ 2017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69,092명 중 60세 이상 인구는 10,566,858명임[61].

정의하며 건강 및 신체적 기능, 경제적 안녕감(financial well-being), 인지적 기능의 감소, 외모의 변화 및 사회적 손실(social losses)의 지표로서 구분하였다. 이처럼 노년기에 맞이하는 노화불안은 신체, 심리, 정서, 사회 그리고 인간의 본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 구성되어 노년기 절망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다[2].

이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서 노화불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Lynch[1]는 '중년위기이론(midlife crisis theory)'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노화불안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퇴직을 앞둔 시점인 50~64세라고 주장했다. 퇴직이라는 생애주기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개인적 역할 축소[2], 전반적 생활에 대한 불안 가중, 경제적 스트레스 증가[11], 개인의 심리 정서적인 효능감 및 통제력의 감소[12] 등 개인의 심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점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자녀의 독립, 결혼이라는 사건을 맞이하여[13] '빈둥지증후군'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기 쉽다. 빈둥지증후군은 주로 여성에게서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는 부모로서 느끼는 상실감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대동소이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보고하는 퇴직과 자녀의 독립 등의 생애주기사건을 경험하는 연령대를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면 60세 전후의 시기이고, 이에 따라 노화불안의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유추가능하다.

한편,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노년기 경제적 상황은 노화불안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OECD회원국 노인빈곤률²은 평균 12.6%인 반면, 우리나라는 49.6%로서 OECD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의 실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노년기 불안의 주된 요인이 Lynch가 주장한 다양한 요인 중 특히나 경제 문제와 관련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사회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는 점차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단독가구(독거+부부가구)의 생활상의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불안감이 전체의 2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인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및 재산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노인부부가구의 42.5%는 소득수준 기준, 하위 50%에 속해있는 1-3분위 노인이면서도 재산수준이 소득수준보다 2분위 미만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3]. 다시 말해 노인부부의 42.5%는 소득도 낮으며 재산도 낮은 경제적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 가구추계(2016)에 따른 계산(132.4만×42.5%) 결과에 따르면 노인부부가구 총 56.3만 가구가 소득과 재산이 모두 낮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라는 산출이 나온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파생한다는 측면에서 노화불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당사자의 우울, 불안의 증가[4][14][15], 주관적 건강수준[16] 및 생활만족도의 하락[17-19] 그리고 이로 인한 노후 준비에의 어려움 증폭[20] 등 부정적 심리기제의 증폭을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동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인의 10.9%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 40.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적 스트레스는 노년기 노화불안의 주된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부정적 생각은 각종 심리정서적 위기와 더불어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21] 전반적인 노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화불안은 개인의 심리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수준은 낮아지고[17][22][23], 우울[15][24], 정신장애의 위험성 증가[25]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노화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노화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에 탄력적으로 적응을 하는 이른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라는 과업을

2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전 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노인의 비율을 뜻함

달성하기도 하는 것이다[8].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들이 대다수였다[22]. 이에 성공적 노화의 장애요인이 되는 노화불안의 근원이 되는 요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의 기저가 되는 요인이 경제적 스트레스라 가정한다.

2. 노년기 봉사활동

2.1 노년기 봉사활동

고령자에게 있어서 봉사활동은 단순히 보람찬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2014년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7.2%로[27], 5명 중 1명꼴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이론(Role theory)에 의하면 역할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일련의 행동유형으로서, 인간에게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사고 및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28]. 그리하여 개인이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 개인의 능력 및 위신의 향상을 통해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는 핵심 요인이 되어 삶의 질을 높여진다고 설명하고 있다[29]. 하지만 노년기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계절에 있어서 '겨울'에 비유되는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은퇴를 비롯한 다양한 역할의 축소(social withdrawal)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상실의 시기에 봉사자로서의 역할의 획득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하는 의무나 자신의 다른 역할의 연장선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역할백락을 가진 일부 젊은 세대와는 달리[30], 노인은 보다 자신의 강점과 가족의 요구에 보다 밀접한 연관을 가진 맥락 가운데 생산적인 역할수행에 따른 역할강화(role enhancement)가 되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이점을 누리게 될 수 있다[31].

실제로 노인의 봉사활동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봉사활동이라는 생산적 활동에 따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이점에 대해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6][15][32-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연령적 효과로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불안정서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의견이 있다. 실제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감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15][34].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는 부정정서의 감소가 연령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없다는 Jorm[35]의 메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봉사활동이 노인에게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이점으로는 봉사활동으로 인한 신체 사용으로 기초체력의 증진[36]이 될 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낮춘다는 연구[26][37]도 보고되고 있다. 심리적 이점으로서 삶의 질 향상[33][38][39], 자존감 증진[40], 우울의 감소[31][41]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42]이 있다. 그리고 인지적 이점으로는 운영능력 및 기억력의 향상[32]이 있다. 이외에도 단순반복식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봉사자 주도형으로 분류되는 멘토링과 같은 봉사활동의 경우는 고령봉사자로 하여금 심리사회적 자원을 보다 풍성하게 하여 임파워먼트 및 성취감을 증진시키고,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선행 지식 및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학습을 요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지적능력의 향상도 도모하는 긍정효과를 가져온다[43].

물론 봉사활동 참여라는 변인으로서 역할이론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즉, 봉사활동으로 말미암아 노인들이 건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노인들이 봉사활동과 같은 생산적 활동에 참여를 더욱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42]. 하지만 Thoits & Hewitt[44]의 봉사활동에 관한 중단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봉사활동이 신체적, 심리적 복지를 증진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이러한 봉사활동의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도 특히나 봉사활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개인적 만족도라는 자발적 동기가 노화불안을 완화하는 핵심기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한다.

2.2 봉사활동 참여동기와 연령

인간의 행위는 자기중심적(self-focus) 행위와 타의적(other-focus) 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은 행위의 동기에 있어서 자기지향적(self-oriented), 그리고 타인지향적(other-oriented) 동기로서 나누어진다[7].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은 이타적 가치(altruistic values)에서 발현된 타인지향적 행위로

서 보이지만,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 동기에는 자기만족, 자기계발, 새로운 기술의 습득 및 강점 발견 등 개인적 차원의 동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개인의 효용내지는 만족감과 같은 자기지향성 동기(self-oriented motivation)는 봉사활동의 지속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다양한 봉사활동의 긍정효과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령봉사자의 봉사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발적 동기보다는 이타적 동기를 포함한 타인지향성이 봉사의 다양한 효용을 가져오는 기제가 된다고 보고하기도 한다[37][45][46].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은 무급으로 진행되는 탓에 금전적 보상의 측면 이외의 내적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의 만족도, 즉 자발적 동기가 된다[47]. 그리하여 노년기 봉사활동을 통한 역할의 획득 및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긍정적 자아상과 같이 개인체계에서의 긍정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화불안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가지기 때문이다[25]. 실제로 주관적 건강의식이 실제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신뢰할만한 척도가 되는데[48], 이는 개인이 주관적 인식(perceptions)은 실제 의학적 상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노년기 삶의 질을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근거한다[4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긍정적 인식의 형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활동의 질적인 측면과 이에 대한 스스로의 긍정적 평가, 즉 봉사활동 만족도로 대변되는 자발적 동기가 봉사활동 만족의 핵심기제라고 가정한다.

한편 고령봉사자의 연령은 노화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 실제로 봉사자와 연령에 관한 선행연구[25][31]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노화불안이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고령자일수록 노화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적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이러한 긍정인식을 도모하는 변인이 된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서, 노인봉

사자를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과 정신건강에 관한 종단연구를 진행한 Musick & Wilson[31]은 고연령 봉사자일수록 심리적, 사회적 자원을 매개로 우울 수준이 낮음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65세 미만 집단의 경우는 봉사활동 참여와 정신건강은 관계가 없는 반면, 65세 이상 집단에게서는 자존감과 사회적 자원증진이 매개가 되어 우울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즉, 고령자에게 봉사활동은 단순히 '보람찬 활동'의 의미를 넘어서 역할부여의 수단이 되며, 이는 사회와 교류하는 수단이 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전히 봉사활동에 가치를 높게 두어 활동 자체를 즐기며 하는 자기지향적 동기와 연령과의 상호작용은 노화불안과 같은 부정 요인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 가정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지역 2개, 경기지역 2개 등 총 4개 노인복지관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노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21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 중 해당 문항에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결측치가 있는 등 응답이 부실한 29명을 제외한 182명을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우선 Lynch의 중년위기이론에 근거하여,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기제로서 보고되는 노년기 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동기, 그리고 연령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년기 노화불안에 대한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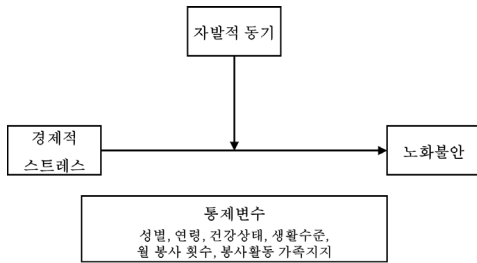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3.1 독립변수: 경제적 스트레스

Lempers & Clark-Lempers[57]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박해성[58]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소득·지출 스트레스, 자산·부채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16개로 구성되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2점, '그런 편이다'가 3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가 4점으로 4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모든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977$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2 종속변수: 노화불안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을 노인의 상태 및 과정과 관련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정의 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노화불안 척도는 Lasher & Faulkender[10]의 AAS(Anxiety about Aging Scale) 척도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긍정 13문항과 부정 7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긍정적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실제 설문지 *표시는 삭제). 일부 문항에서는 질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더'를 추가하였으며, 척도는 상실에 대한 불안,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안정, 외모에 대한 걱정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분석에서는 행렬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되지 않는 1개 문항('나는 나이가 들어서 늙은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대해 두렵지 않다')

를 제외한 총 19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화불안 정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684$ 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3 조절변수: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동기

봉사활동의 자발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Clary & Snyder[47]가 자원봉사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원봉사 기능 척도(Volunteer Function Inventory: VFI)의 사후성취도를 이금룡, 권기환[59]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발적 동기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VFI에서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상을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노인들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과거형의 문구를 현재형으로 수정하여 '나는 봉사활동을 즐기면서 한다', '봉사활동은 나를 개인적으로 충족시킨다', '봉사활동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봉사활동을 통해 나는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나는 봉사활동을 잘 실행하고 있다' 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896$ 으로 높게 나타났다.

3.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기본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서 성별, 연령을 투입하였다. 또한 노화불안을 높이는 변인으로 보고된 주관적 건강상태[10], 주관적 생활수준[25]을 선정하였다. 또한 고령봉사자에 관한 선행연구[50]에서 월 봉사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월 봉사 횟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봉사활동의 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0]를 바탕으로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각 변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인구사회

학적 변인과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통제, 독립, 조절,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는 59명(32.4%), 여자는 123명(67.6%)로 여자의 비중이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 분석 대상자 선별 당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여성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대는 65세 이상~75세 미만이 44.3%(81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65세 미만 40.0%(73명), 그리고 75세 이상은 14.5%(27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해 주관적으로 물어본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64.3%(117명), 좋은편이 30.8%(56명), 그리고 나쁜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9%(9명)로 보고되었다.

표 1.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수 구성

변인	내용
성별	남(=0), 여(=1)
연령	65세 미만(=0), 65세 이상~75세 미만(=1), 75세 이상(=2)
주관적 건강상태	나쁜편(=0), 보통(=1), 좋은편(=2)
주관적 생활수준	
월 봉사횟수	1회 ~ 5회(=0), 6회 ~ 15회(=1), 16회 이상(=2)
봉사활동 가족지지	1=매우 싫어하는 편, 2=싫어하는 편, 3=보통, 4=좋아하는 편, 5=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편

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성별의 경우, 다른 변인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의 경우는 생활수준($r=-.255, p<.001$),

자발적 동기($r=.292, p<.001$)와 봉사활동 가족지지($r=-.178, p<.05$) 그리고 노화불안($r=-.206, p<.01$)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상태는 생활수준($r=.380,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변인으로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월 봉사횟수($r=.161, p<.05$), 자발적 동기($r=.192, p<.01$)와 봉사활동 가족지지($r=-.206, p<.01$) 그리고 노화불안($r=.336, p<.001$)과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발적 동기는 노화불안($r=-.164, p<.05$)과 부적 상관을, 그리고 봉사활동 가족지지도 노화불안($r=-.163, p<.05$)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절대값 기준, 왜도의 범위는 .436~2.830, 첨도의 범위는 .006~9.339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노화불안의 경우, 첨도가 9.339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Kline[51]이 제시한 왜도와 첨도의 값, 즉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정규성을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가설을 채택하였다. 사용된 노화불안 변인의 경우, 연구대상자가 60세 이상의 노인인 특성상 노화불안의 표준편차인 .138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의 노화불안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평균(3.305)에 과밀한 탓에 첨도 값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 가능성이 가능하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변인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	59	32.4
	여	123	67.6
연령	65세 미만	73	40.0
	65세 이상 ~ 75세 미만	81	44.3
	75세 이상	27	14.5
	결측	1	0.2
주관적 건강상태	좋은편	56	30.8
	보통	117	64.3
	나쁜편	9	4.9
주관적 생활수준	좋은편	33	18.1
	보통	107	58.8
	나쁜편	42	23.1
월 봉사횟수	1회 ~ 5회	157	86.2
	6회 ~ 15회	19	10.2
	16회 이상	6	3.2
계		182	100.0

표 3.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n=182)

변인	1	2	3	4	5	6	7	8	9
1. 성별	1								
2. 연령	-.114	1							
3. 건강상태	-.037	.040	1						
4. 생활수준	.017	-.255***	.380***	1					
5. 월 봉사횟수	-.109	.137	.027	-.122	1				
6. 경제적 스트레스	.079	.121	.083	-.043	.161*	1			
7. 자발적 동기	.039	.292***	.035	.090	.046	.192**	1		
8. 봉사활동 가족지지	-.046	-.178*	-.061	.127	-.258***	-.206**	-.113	1	
9. 노화불안	.076	-.206**	-.005	.013	.001	.336***	-.164*	-.163*	1
평균(S.D)	1,675(.469)	67,359(6,293)	3,478(.890)	3,126(.980)	3,785(4,299)	1,190(.707)	3,904(.588)	2,593(.772)	3,313(.134)
최소값	1,00	60,00	2,00	1,00	1,00	.50	2,40	1,00	2,37
최대값	2,00	91,00	5,00	5,00	25,00	3,19	5,00	4,00	3,58
왜도	-.758	1,136	.804	.880	2,830	1,183	.436	-.463	-1,546
첨도	-1,442	1,008	-.641	-.006	8,276	.697	-.325	-.159	9,339

*p<.05, **p<.01, ***p<.001

3. 연구모형 검증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봉사활동 자발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통제변인 및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투입한 것이고, 모형2는 경제적 스트레스, 연령과 자발적 동기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이다. 그 결과, 모형2의 설명력은 조절된 R²값을 기준으로 26.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연령($\beta=-.191, p<.01$)과 봉사활동 가족지지($\beta=-.228, p<.01$)가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노화불안이 더욱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요변인의 값으로서 독립변인인 경제적 스트레스($\beta=.422, p<.001$)는 노화불안을 높이는 강력한 변인으로 검증되었고, 반면에 조절변인인 봉사활동 참여의 자발적 동기($\beta=-.217, p<.01$)는 노화불안에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한 상호작용 변인으로서 연령, 경제적 스트레스 각 변인과 자발적 동기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발적 동기와 연령의 상호작용($\beta=-.190, p<.01$),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beta=-.233, p<.01$)은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노화불안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이 된 것이다. 이는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노화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년기의 봉사활동 참여로 인한 만족도와 같은 자발적 참여동기가 노화불안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령과의 상호작용은 고연령의 자원봉사자일수록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심리적 긍정효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표 4. 연구모형 검증

	모형1		모형2	
	B	β	B	β
(상수)	3,780		3,805	
통제변인				
성별(남=0)	.005	.019	.008	.029
연령(A)	-.004	-.209**	-.004	-.191**
건강상태	-.004	-.028	-.005	-.031
생활수준	.002	.018	.003	.020
월 봉사 횟수	-.002	-.053	-.003	-.090
봉사활동 가족지지	-.029	-.166*	-.040	-.228**
독립변인				
경제적 스트레스(B)	.070	.370***	.080	.422***
조절변인				
자발적 동기(M)	-.043	-.191**	-.049	-.217**
상호작용변인				
(M) × (A)			-.007	-.190**
(M) × (B)			-.072	-.233**
		R2=.226 Adj. R2=.190 F=6,293 p=.000***		R2=.308 Adj. R2=.268 F=7,579 p=.000***

*p<.05, **p<.01, ***p<.001

이러한 연구모형 검증에 토대로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노화불안을 높이는 주요한 변인이고, 반대로 봉사활동 참여의 자발적 동기는 노화불안을 낮추는 기제가 된다. 그리고 상반된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노화불안을 낮추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봉사활동에 자발적 동기가 높은 집단일수록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불안의 증가에 대한 기술키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또한 고연령의 봉사자일수록 그 효과가 큰 것을 뜻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노년빈곤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경제적 불안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미덕으로 여겨져 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노년의 의미, 개인의 만족감, 그리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핵심 기제로서의 자발적 동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에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노화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에 경제적인 불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년에 대한 불안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단순 경제력에 대한 불안에 국한 되지 않고 신체, 심리정서, 인지, 그리고 사회적인 어려움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선행연구[5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보고되고 있듯이, β 값을 기준으로 경제적 스트레스는 노화불안에 $\beta=4.22(p<.001)$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변인보다 월등히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노년기 봉사활동에 대한 자발적 동기는 노화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고령봉사자의 봉

사활동의 이점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25][29][5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역할이론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노년기 은퇴, 부모로서 경험하는 자녀의 독립, 그리고 친족, 지인들의 죽음과 같은 일련의 상실을 경험하며 역할의 축소를 경험하는 때에 봉사활동을 통한 새로운 역할의 확보는 건강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한 봉사활동 관련 통제변인으로서 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도 노화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월 봉사 횟수는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가 노화불안과 부적관계에 있는 것은 지지적인 관계망은 부정적 심리기제를 낮추는 변인이 됨에 따라 가족 관계망에서의 지지는 큰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노년기 봉사활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족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촉진됨으로써 노인의 긍정 변화를 유도하고, 노화불안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사회적 유대 관점에 설명이 가능하다[25]. 한편 월 봉사 횟수가 주관적 건강 및 노화불안과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29][32]와 대별되는 결과인데 이는 봉사활동의 횟수 자체에 대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노인의 봉사활동의 경우, 고령자인 탓에 각자 신체적 활동 수준의 역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횟수 및 시간에서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53]. 즉, 신체 기능이 좋지 않아 월 1회만 봉사활동이 가능한 봉사자의 경우, 단 1회 밖에 하지 않지만, 이로 인한 동기부여는 타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봉사횟수와 노화불안의 관계가 정적 혹은 부적 관계로서 단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연령에 따른 노화불안의 수준이 부적관계에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 봉사자일수록 노화불안의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65세에 이르는 중년기의 노화불안이 더욱 높다는 중년위기기론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노인이 될수록 노화를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며, 이는 노화에 대한 전반적 불안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25]로 해석이 가능하다.

넷째,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봉사활동의 자발적 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연령과 노화불안과의 관계에서도 봉사활동 자발적 동기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봉사활동 참여자들 중에서도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을 높인다더라도, 이들의 자발적 동기로 말미암아 노화에 대한 불안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봉사활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에 대해 설명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봉사활동의 동기에 따른 사망위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Konrath et al.[7]의 연구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동기를 자존감과 같은 심리기제의 강화, 새로운 기술 습득과 같은 동기로서 정의한 반면 타인지향적 동기는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이타적 가치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정의한 이타적 동기가 자발적 동기에 포함되어 조작되었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연령과의 상호작용은 노화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소 흥미로운 결과이다. 상호작용항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것은 고연령층일수록 봉사활동으로 인한 효용성이 더욱 높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는 연령에 따른 봉사활동의 차이를 지적한 선행연구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Musick & Wilson[31]은 65세를 기준으로 65세 미만 봉사자와 65세 이상 고령봉사자의 집단을 나누어 봉사자의 역할백락에 따른 우울의 수준을 검증한 결과, 65세 이상 집단에서만 봉사활동에 따른 우울의 감소,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고연령 봉사자에게 봉사활동이 가지는 그 효용의 가치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년층의 봉사활동 증진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Yuen[43]이 제시한 고령자의 봉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인 개인적 성향과 개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제언을 하고자한다. 우선 개인적 성향으로서 무엇보다 체력 및 신체 기능과 관련된 건강상의 요인이다. 노화로 인해 신체적 기능의 감

소를 경험하는 고령자의 특성상, 지나친 신체적 활동은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노인봉사자의 경우 단순 작업 활동을 선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빠른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단순 작업은 지양하며 신체적 기능의 적당 수준을 활용하며 동시에 봉사자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령봉사자의 선호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세대 간 잠재력(intergenerational potential)'으로 정의된 세대 간 통합적 봉사활동을 제안한다. 세대 간 잠재력이란 인간의 연령에 따른 인지적 발달의 관점에 근거하는데, 이는 1세대에 해당되는 고령자와 3세대에 해당되는 저연령자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지식과 정보를 교환함에 있어서 보다 큰 인지적 이점이 있다는 관점에 근거한다[54]. 실제로 세대 간 교류에 의한 긍정적 결과물에 관한 실증적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 연장선으로서 Mergler, Faust & Goldstein[60]에 따르면 고령자가 대학생(college students)와 같은 저연령층 사람과의 교제를 할 시에 더 좋은 기억력을 보임과 동시에 저연령층은 노인과 함께 할 때 더욱 학습효과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결과물에 관한 연구[23][55]와 결과를 동일하게 보고하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노인의 지식과 지혜가 녹아 있는 멘토링이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개인적 자원과 관련된 장애요인으로서 심리정서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노년층은 주로 베이비붐 세대로서 과거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Yuen[43]은 이러한 노인의 특성으로서 낮은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봉사활동에의 참여를 꺼리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거나 이로 인한 높은 수준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원봉사로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년빈곤률이 OECD국가의 1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층의 봉사활동 진입에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5]. 이에 우선적으로 심리정서적 개입을 제언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노년층은 봉사의 수혜자로 오래도록 존재한 탓에 봉사서비스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제공의 주체로서의 노인봉사자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캠페인을 통한 시민들의 인식 계도가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고령봉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전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단순 봉사자가 아닌, 전문봉사요원으로 느낌으로써 자존감을 높임과 동시에 봉사활동에의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는 역할이론에 근거하여 노년기의 신체적, 인지적 이점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봉사활동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써 대안적인 바우처 제도의 운영을 제언한다. 즉, 유급봉사의 도입인데,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유급봉사가 참된 봉사활동인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Fureai Kippu Time-banking' 제도가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는 '개호 관계 티켓(Caring Relationship Tickets)'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 시간예약제' [5]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1995년부터 시행중으로 노인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하면, 그 시간만큼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을 할 수 있고, 이로써 추후에 본인이 필요할 시에 쓸 수 있는 크레딧 즉 시간을 얻는 제도이다[56]. 이는 때때로 노년 간에도 적용이 되는 제도로서 일종의 상호부조적 성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이 제도 자체가 복잡성 및 평가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56] 마치 만병통치약(panacea)과 같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제한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봉사활동으로의 유인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년의 일자리아업을 유지하며 동시에 유급 고령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해 노화불안을 낮추어 궁극적으로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60세 이상 봉사자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더 큰 표본을 바탕으로 노화불안과 봉사활동과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봉사에 대한 자발적 동기의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데이터상의 한계로 타인지향적 동기와의 비교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봉사활동 동기에 있어서 자기지향성과 타인지향성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풍성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경제적 스트레스의 경우 하위항목이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특성상 세부적으로 하위항목에 따른 노화불안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 및 지출, 그리고 자산 및 부채에 따른 스트레스 등 하위항목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구분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S. M. Lynch,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aging anxiety," *Research on aging*, Vol.22, No.5, pp.533-558, 2000.
- [2] 박영숙, 천정환, 김주연, 박상규, 강영실, 신소정, 김수정, 황희숙, 문영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도서출판 그린, 2016.
- [3]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 노인의 빈곤 관련 지표 현황*, 2016.
- [4] 계선자, 박혜성,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2권, 제2호, pp.57-72, 2008.
- [5] 김충묵, 이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pp.287-307, 2016.

- [6] WHO,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WHO Pub., 2012.
- [7] S. Konrath, A. Fuhrel-Forbis, A. Lou, and S. Brown, "Motives for volunteering are associated with mortality risk in older adults," *Health Psychology*, Vol.31, No.1, pp.87-96, 2012.
- [8] A. H. Harris and C. E. Thoresen, "Volunteering is associated with delayed mortality in older people: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study of aging,"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10, No.6, pp.739-752, 2005.
- [9] D. Shmotkin, T. Blumstein, and B. Modan, "Beyond keeping active: Concomitants of being a volunteer in old-old age," *Psychology and aging*, Vol.18, No.3, pp.602-607, 2003.
- [10] K. Lasher and P. J. Faulkender,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37, pp.247-259, 1993.
- [11] D. Holtz-Eakin and T. M. Smeeding, *Income, wealth, and intergenerational economic relations of the aged*, *Demography of aging*, pp.102-145, 1994.
- [12] C. E. Ross and P. Drentea, "Consequences of retirement activities for distress and the sense of personal control,"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9, No.4, pp.317-334, 1998.
- [13] D. J. Levinson,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1978.
- [14] J. Snowdon, "How high is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in old age?," *Revista brasileira de Psiquiatria*, Vol.24, pp.42-47, 2002.
- [15] J. Mirowsky and C. E. Ross, "Ag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3, No.3, pp.187-205, 1992.
- [16] 이후연, 김성아, 이혜진, 정상혁, "노인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주관적 건강수준과의 관계," *보건행정학회지*, 제15권, 제2호, pp.70-83, 2005.
- [17] 강해자,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7권(단일호), pp.191-220, 2012.
- [18] 이성은, "만성질환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경제활동참여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0권, 제1호, pp.234-262, 2012.
- [19] T. M. Calasanti, "Gender and life satisfaction in retirement: An assessment of the male model,"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Vol.51, No.1, pp.18-29, 1996.
- [20] 김정선, 강숙,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돌봄부담감, 노화불안, 노후준비 및 삶의 질,"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6권, 제3호, pp.440-452, 2012.
- [21] G. H. Han, H. J. Choi, K. S. Eun, J. H. Lee, S. H. Joo, and J. H. Kim, *Korean baby boomers in transition*, SNU Institute on Aging, MetLife Mature Market Institute, MetLife Korea Foundation, 2011.
- [22] 남석인, 김준표, 이다지, 신지민, "노인의 노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유무에 따른 비교와 부부간 대화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노인복지학회*, 제70권, pp.169-195, 2015.
- [23] E. M. Kessler and U. M. Staudinger, "Intergenerational potential: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between older adults and adolescents," *Psychology and aging*, Vol.22, No.4, pp.690-704, 2007.
- [24] 김재희, 김옥, "노인의 노화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통제감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2권, 제4호, pp.233-260, 2014.
- [25] A. E. Barrett and C. Robbins, "The multiple sources of women's aging anxiety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Aging and Health*, Vol.20, No.1, pp.32-65,

- 2008.
- [26] L. A. Harris and S. M. C. Dollinger,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and anxiety about ag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4, No.2, pp.187-194, 2003.
- [27] 한국자원봉사문화, *한국인의 자원봉사, 기부, 이웃돕기*, 2014.
- [28] S. D. Sieber, "Toward a theory of role accumu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9, No.4, pp.567-578, 1974.
- [29] N. Morrow-Howell, J. Hinterlong, P. A. Rozario, and F. Tang,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Vol.58, No.3, pp.137-145, 2003.
- [30] R. A. Sundeen, "Family life course status and volunteer behavior: Implications for the single parent," *Sociological Perspectives*, Vol.33, No.4, pp.483-500, 1990.
- [31] M. A. Musick and J. Wilson, "Volunteering and depression: The rol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in different age group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56, No.2, pp.259-269, 2003.
- [32] M. C. Luoh and A. R. Herzog, "Individual consequences of volunteer and paid work in old age: Health and morta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43, No.4, pp.490-509, 2002.
- [33] J. A. Wheeler, K. M. Gorey, and B. Greenblatt, "The beneficial effects of volunteering for older volunteers and the people they serve: A meta-analy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47, No.1, pp.69-79, 1998.
- [34] D. K. Mroczek and C. M. Kolarz, "The effect of age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5, No.5, pp.1333-1349, 1998.
- [35] A. F. Jorm, "Does old age reduce the risk of anxiety and depression? A review of epidemiological studies across the adult life span," *Psychological medicine*, Vol.30, No.1, pp.11-22, 2000.
- [36] E. J. Tan, Q. L. Xue, T. Li, M. C. Carlson, and L. P. Fried, "Volunteering: a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 for older adults—the experience Corps® program in Baltimore," *Journal of Urban Health*, Vol.83, No.5, pp.954-969, 2006.
- [37] S. Konrath, A. Fuhrel-Forbis, A. Lou, and S. Brown, "Motives for volunteering are associated with mortality risk in older adults," *Health Psychology*, Vol.31, No.1, pp.87-96, 2012.
- [38] 신원우,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와 생활 만족도간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4호, pp.135-163, 2011.
- [39] R. L. Jirovec and C. A. Hyduk, "Type of volunteer experience and health among older adult volunteer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Vol.30, No.3-4, pp.29-42, 1999.
- [40] A. M. Omoto, M. Snyder, and S. C. Martino, "Volunteerism and the life course: Investigating age-related agendas for ac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22, No.3, pp.181-197, 2000.
- [41] 김수현,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가 신체적 건강,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3권, 제1호, pp.53-66, 2013.
- [42] T. Y. Lum and E. Lightfoot, "The effects of volunteering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older people," *Research on aging*, Vol.27, No.1, pp.31-55, 2005.
- [43] H. N. Yuen, *Active Ageing and Senior Volunteering in Hong Kong*, In K. C. Raymond,

- W. Lih-Rong, and O. Z. Jens(Eds), *Social Issues and Policies in Asia: Family, Ageing and Work*,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77-98, 2014.
- [44] P. A. Thoits and L. N. Hewitt,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42, No.2, pp.115-131, 2001.
- [45] 황선영,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및 지속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8권, 제1호, pp.99-124, 2006.
- [46] J. R. Ferrari, T. Luhrs, and V. Lyman, "Eldercare volunteers and employees: Predicting caregiver experiences from service motives and sense of community,"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Vol.28, No.5, pp.467-479, 2007.
- [47] E. G. Clary and M. Snyder, "The motivations to volunteer: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8, No.5, pp.156-159, 1999.
- [48] E. L. Idler and Y. Benyamini, "Self-rated health and mortality: a review of twenty-seven community studi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38, No.1, pp.21-37, 1997.
- [49] 김정연, 이석구, 이성국, "연구 논문: 노인에서 건강행태, 건강수준, 일상생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제30권, 제2호, pp.471-484, 2010.
- [50] P. Moen, D. Dempster-McClain, and R. M. Williams Jr, "Successful aging: A life-course perspective on women's multiple roles and healt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7, No.6, pp.1612-1638, 1992.
- [51]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NY: The Guildford Press, 2011.
- [52] D. R. Williams and C. Collins, "US socioeconomic and racial differences in health: patterns and expla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1, No.1, pp.349-386, 1995.
- [53] 이현기,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서 노인자원봉사 활동: 인적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45권, pp.317-346, 2009.
- [54] N. L. Mergler and M. D. Goldstein, "Why are there old people," *Human Development*, Vol.26, No.2, pp.72-90, 1983.
- [55] D. S. Meshel and R. P. MCGlynn, "Intergenerational contact, attitudes, and stereotypes of adolescents and older people," *Educational Gerontology*, Vol.30, No.6, pp.457-479, 2004.
- [56] M. Hayashi, "Japan's Fureai Kippu time-banking in elderly care: origins, development, challenges and impac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Vol.16, No.A, pp.30-44, 2012.
- [57] J. D. Lempers and D. S. Clark-Lempers, "Economic hardship, family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distress: An evaluation of a stress-distress mediation model in mother-daughter and mother-son dyads," *Adolescence*, Vol.32, No.126, pp.339-356, 1997.
- [58] 박혜성, *노인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59] 이금룡, 권기환, "자원봉사 동기와 동기충족 및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7권, pp.83-111, 2011.
- [60] N. L. Mergler, M. Faust, and M. D. Goldstein, "Storytelling as an age-dependent skill: oral recall of orally presented stor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20, No.3, pp.205-228, 1985.
- [61] 행정안전부, "(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rcps.egov.go.kr:8081/ageStat.do?command=month>, 2017.11.2 검색.

저 자 소 개

최 장 원(Jang-Won Choi)

정회원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 2016년 6월 ~ 현재 : 부산외국
어대학교 사회복지재활학과장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재활복지, 청소년복지, 비영
리기관